

이 淡墨인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림 그리던 餘勢로 씌여진 것이리라 고 짐작된다. 이 落款에는 畫題 書頭에 葉形印形 하나와 雅號 밑에 적은 印形 두 개씩을 朱로서 그려 넣었는데 이 세 개의 印形에 그려진 文字는 未解讀이다. 다만 十八面에만 「杏園」이라는 雅號外에 「怡」라는 單字名을 써 넣었음으로써 每帳 그려 넣은 印形中 下段印形의 右便文字가 「怡」字라고 解讀될 뿐이다.

이 畫帖의 그림은 大體로 翎毛와 人物, 또는 樹枝法 等이 그 構圖法과 함께 檀園의 風格을 彷彿케 하는 老練한 그림이며 別圖 寫眞 「山水人物」이나 浪鷗圖는 한층 그 感이 깊다. 이 畫帖의 裝幀이 보인 古格이나 畫面에 풍기는 非凡한 格調로 보아서 檀園의 作品이 아니면 아마도 檀園과 同時代 或은 이에서 멀지 않은 時代의 優秀한 作家의 솜씨로 된 作品으로 比定할 수 있으리라 고 생각되나 「杏園」의 正體에 對해서는 아직 그 解明의 端緒를 잡지 못하고 있다. (二九六〇、八、二九)

通度寺 寶物櫥所在 白磁寶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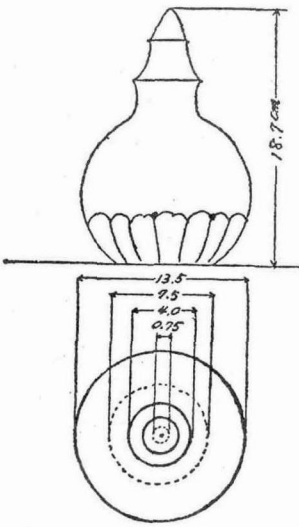
崔 淳 雨

梁山 通度寺 寶物櫥안에 異形 白磁器 하나가 있다. 높이 一八·七cm 胴徑 一三·五cm의 一種의 寶珠形으로서 器底의 中央에 直徑 〇·七五cm의 둥근 구멍이 뚫려 있고 器底에서 四·五cm 相距한 胴體下部에 等高로 뚫린 두 개의 작은 구멍이 나란히 붙어 있다. 寶珠形의 上尖部는 普通 陶製 蓮蓬과는 달리 二層으로 마디가 지어져서 全體의 形象이 마치 浮屠形에 가까우며 寶珠의 胴體下部에는 높이 約 四·五cm 部位로부터 모래기로 대법하게 아래도리를 후려쳐서 器底部의 直徑은 겨우 七·五cm 밖에 안 된다. 釉藥은 牙白色이며 잘게 釉龜裂이 있어서 그 器形과 함께 자못 古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 寶物櫥안에 保管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通度寺의 中心建物인 大雄寶殿에는 지붕 용마루의 근데

근데와 추녀위에 一列로 陶製 蓮蓬 모양이 장식되어 있음은 일찍 부터 注意되어 온 바이다. 이들 大雄寶殿 위의 蓮蓬을 가까이서 觀察할 수가 없어서 斷言하기는 어려우나 望遠境으로 보면 마치 연꽃 봉우리의 形象과 흡사한 白磁製品으로서 그 尖頭에는 或은 鐵砂로 장식한 것이 이끼가 낀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윤치 있는 色彩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去年에 이에 酷似한 形象의 雅趣있는 白磁蓮蓬 한 개가 서울 S 古美術商에 나와 全盛弼氏의 所藏으로 되었는 데 이로써 通度寺 지붕 蓮蓬도 대장 이런 類의 것이리라 는 짐작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 寶物櫥속에 남아 있는 寶珠는 크기로나 形態로나 이것들에 비할 것이 아니며 果然 이것이 通度寺의 元大雄寶殿에 썼던 예전 蓮蓬이라고 斷定할 수는 없으나 그 形態와 뚫린 구멍 등으로 보아서 直覺적으로 이것이 매우 古格있는 개와 지붕 연봉이라고 느껴진 것이다. 寶珠形을 개와 짐 용마루나 추녀끝 瓦釘의 못머리 위에 덮어 씌우는 예는 일찍이 中國에서 시작되었던 모양으로 有名한 宋代의 「營造法式」에도 「葱臺頭釘」 등의 文字가 나타났으며 中國人들은 이것을 帽釘이라고 불렀던 모양이다. (註)

韓國內에는 現在 銀海寺 靈山殿, 松林寺 大雄殿, 神溪寺 大雄殿, 傳燈寺 大雄殿, 通度寺 大雄寶殿, 梵



魚寺 大雄殿、法住寺 天王門 등 屋上에 남아 있는 것이 顯著한 例이고 절에 傳來된 個個의 離脫遺物도 여기저기 남아 있다고 傳聞되고 있다.

(註) 天沼俊一博士 續成壽樓 隨筆所載「朝鮮의 佛寺建築に於ける瓦釘의 寶珠」

聞慶 觀音里的 石佛과 石塔

秦 弘 燮

一、五層石塔

聞慶郡 聞慶面 葛平里 聞慶警察署 葛平支署構內에 아담한 五層石塔이 있다. 全高二·九m이며 覆鉢까지 남아 있다. 下臺는 中石을 二區로 區分하고 二枚의 甲石을 덮었으며 上臺와 各層 屋身、屋蓋石은 各各一石이다. 上臺 中石과 初層屋身의 各面은 二區로 區分되었고 二層부터는 隅柱形만 있다. 基壇 中石과 各層 屋身은 上促下寬으로 初層 屋身의 幅은 上端에서 五〇·五cm며 下端에서 五二·三cm이다. 屋蓋石 받침은 各層 三段이며 落水面的 傾斜가 아름답다. 相輪은 一石으로 된 露盤과 覆鉢이 남아 있고 徑二·五cm의 擦柱孔이 있다.



聞慶五層石塔

巨作은 아닐지라도 優麗한 作品의 하나다. 若干의 損傷이 있기는 하나 完美한 形態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이 石塔은 지금 있는 자리가 原位置가 아니고 約 五里 떨어진 山中에 있었던 것이다. 그 原位置는 同面 觀音里 佛堂굴이라 부른다. 西紀一九三六年 頃 賣却된 바 되어 解

體하여 一部는 別處 서울로 移動된 것을 里人들의 反對로 가장 安全하다고 即 다시 盜難당할 憂慮가 없다고 생각한 駐在所 構內에 再建하였던 것이라 한다.

原位置는 一面 田이 되었으나 흙 밑에 八三cm 平方의 地臺石이 남아 있으며 그 後面에는 金堂址가 歷然하다.

二、磨崖半跏像

前述한 五層石塔의 原位置에서 東쪽으로 約二〇〇m 地點에 이 半跏像이 있다. 岩石은 높이 約二·一m, 넓이 約一·一m, 두께 四三cm의 花崗岩이며 뒤는 扁平하다. 이 表面에 像高 約一·九m 頭高 約五〇cm, 肩幅 約六九cm, 膝幅 約八九cm의 像을 陽刻하고 頭上에 徑約八六cm의 頭光이 있다. 全面에 磨滅이 甚하나 大體의 形態는 알아볼 수 있다. 머리에는 三面花冠을 썼고 兩頰은 살이 적고 細眼 厚唇인데 古拙한 微笑가 確然하다. 右手는 右膝위에서 꾸부러서 外掌하여 턱을 받치고 左手는 左膝위에 얹힌 右足을 잡고 있다. 膝部以下는 褶裥이 있기는 하나 磨滅로 因해 明瞭하지 않고 따라서 臺座도 確實치 않다. 圓形頭光에는 化佛이 있는 듯하나 희미하다.

形態는 半跏의 像을 하고 있으나 三國期의 半跏像에 比하면 造型이 鈍하다. 上體나 두 팔의 肥大함과 肢體의 均衡이 不安全한은 自然時代의 下降을 意味하게 된다.

三、石造藥師如來立像

觀音里와 葛平里의 中間쯤 되는 地點에



聞慶 磨崖彌勒半跏像